

무료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레거시 스토리지가 할인과 '무료' 혜택으로 혁신 실패를 감추는 방법

많은 레거시 스토리지 벤더들이 파격 할인과 '무상 제공' 혜택으로 고객을 유인하지만, 이런 방식은 구식 아키텍처,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 그리고 앞으로를 위한 혁신 부족 등 더 심각한 문제들을 감추고 있습니다. 본 문서는 이러한 이른바 비용 절감의 이면에 숨겨진 실제 비용을 분석하고, 레거시 스토리지 업체들이 기술적 한계와 운영상의 복잡성을 가리기 위해 가격 트릭을 사용하는 방식을 조명합니다. 마케팅에 가려진 진실을 꿰뚫고, 장기적인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하는 전략적 스토리지 투자 방안을 확인해보세요.

전환점

레거시 스토리지가 경쟁력을 잃은 이유

10~15년 전, 우리는 스토리지 아키텍처에 있어 중대한 전환점 앞에 있었습니다. 가상화 데이터센터가 본격적으로 확산되었고, 아직 초기 단계였던 클라우드의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었습니다. 호황을 맞은 스토리지 시장은 조직들이 새로운 업무 방식을 도입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3-4년의 일반적인 교체 주기에 맞춰 스토리지 벤더들은 기업 변화에 잘 따라간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멈추지 않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이 본격적으로 확산되면서, 조직들은 더욱 빠르게 움직이며 기술 도입 속도를 가속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핵심은 IT 부서에서 애플리케이션 소유자와 개발자로 옮겨졌고, 이들은 기존의 전통적인 시스템 운영 방식에 만족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클라우드가 그들의 기대치를 높였고, 최신 솔루션을 지금 당장 원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전통적인 스토리지 벤더들이 혁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첩한 클라우드 시대 모델로 진화하기 위한 노력을 택하기보다는,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고객을 느리고 구식인 혁신 사이클에 묶어두고, 기업들이 자신들의 속도에 맞추도록 강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치명적 약점을 가리기 위해 거대한 할인 혜택을 내걸었습니다. 할인을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료의 진실

초기 할인은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드러나는 숨은 비용은 막대합니다.

여러 도시를 경유하는 여행을 계획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항공권 예약, 교통편 준비, 호텔 체크인, 짐 정리, 그리고 마침내 잠깐의 휴식. 하지만 며칠 뒤엔 다시 짐을 싸고, 체크아웃하고, 또 다른 비행기를 타고, 모든 걸 처음부터 반복합니다. 이동, 짐 풀기, 짐 싸기의 무한 반복. 여러 목적지 관리는 정말 지치는 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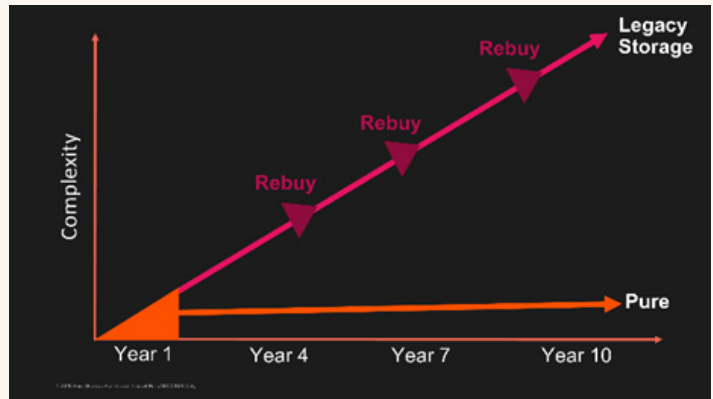
이제 크루즈 여행과 비교해 보세요. 한 번 승선하고, 한 번 짐을 풀면, 매일 아침 새로운 도시에서 눈을 뜹니다. 다시 짐을 쌀 필요도, 복잡한 이동을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과정을 시스템이 알아서 처리해 주기 때문에, 여행자는 과정이 아닌 경험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레거시 스토리지는 마치 여러 도시를 도는 여행처럼 끊임없는 마이그레이션, 중단, 숨은 운영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첫 도입은 "무료"일 수 있지만, 그 뒤로 같은 사이클을 끝없이 반복하게 되며, 매번 더 복잡해집니다. 운영 비용이 초기 도입 비용을 훨씬 넘어설 때, 이게 정말 할인일까요? 아니면 값비싼 착각일 뿐일까요?

현대의 스토리지는 마치 크루즈 여행과도 같습니다. 매끄럽고, 자동화되고, 지속적으로 개선됩니다. 중단도, 숨은 복잡함도 없이, 정말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부담 없는 혁신만이 있을 뿐입니다.

복잡성의 영향



무료에 속아 장기적인 ROI를 놓치지 마세요.

레거시 벤더들은 당신을 자신들의 굴레에 가두려 합니다. 당신이 그들의 한계를 못 본 척하거나, 경쟁사만큼 빠르게 혁신을 지원하지 못하는 점을 참아주길 바라면서 말이죠. 매력적인 조건으로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고객의 비즈니스를 불모로 시간을 벌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문제가 많은 다음 버전을 느릿느릿 출시하면서 말이죠.

최선의 방어책은? 제대로 된 정보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살 때처럼, 할인과 리베이트로 현혹하는 영업 수법에 넘어가지 마세요. 중요한 건 최종적으로 지불하게 될 '총비용'입니다.

보다 현실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기업이 현재 사용 중인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사제로 들어보겠습니다. 현대적인 솔루션인 퓨어스토리지와 기존 레거시 스토리지 시스템을 비교 분석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실제 비용과 비즈니스 영향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무료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퓨어스토리지 vs. 레거시 스토리지¹

69%

하드웨어 도입 비용
최대 69% 절감

95%

운영 비용 최대 95% 절감

57%

지원 및 유지보수 비용 최대 57% 절감

91%

스토리지 시스템 관리 비용 최대 91% 절감

89%

오라클 관리자의 스토리지 운영
비용 최대 89% 절감

69%

클라우드 스토리지 관련 비용 최대 69% 절감

이제 “무료”의 덫에서 벗어날 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무료”라는 착각에 속아 장기적인 진짜 비용을 놓치지 마세요. 레거시 벤더의 느리고 비싼 업그레이드 사이클에 갇히지 말고, 당신의 비즈니스와 함께 진화하며 혁신 속도에 맞춰 움직일 수 있는 스토리지 플랫폼에 투자하세요.

퓨어스토리지와 함께라면 단순히 스토리지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혁신을 함께 만들어갈 파트너를 얻는 것입니다. 중단을 유발하는 업그레이드와 숨은 비용을 강요하는 레거시 벤더들과 달리, 퓨어스토리지 플랫폼은 다운타임이나 재구매 없이 지속적인 개선을 보장합니다. 퓨어스토리지의 간단하고 예측 가능한 가격 모델은 레거시 스토리지의 복잡함을 없애고, 클라우드 시대를 위해 설계된 아키텍처로 향후 확장에도 완벽하게 대응합니다.

“무료”의 덫에서 벗어나세요. 당신의 발목을 잡는 벤더가 아닌, 앞서갈 수 있도록 함께하는 스토리지 파트너를 선택하세요.

↗ 퓨어스토리지 플랫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purestorage.com/future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 오라클 워크로드를 퓨어스토리지 플래시어레이(FlashArray)로 통합했을 때의 경제적 이점 분석, 아비브 카우프만(Aviv Kaufmann), 엔터프라이즈 전략 그룹(Enterprise Strategy Group), 2022년 12월.

purestorage.com/kr

02-6001-3330

